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월 위원(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호 문교위원회 2003. 11. 24)

(질 의)

- 의왕시 소재 명지외국어고등학교 관련
 - 1개동 3층인 500평 규모의 교육용도시설에 대해 사기업인 모 주식회사에 임대료 1억 2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하고 있으며 교육용재산보고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현재의 처리현황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임대한 교육용시설은 1996. 6. 7 준공한 3층 교육관 건물로(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300,000천원을 용자받음) 교육용으로 활용되지 않아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송지아이디(대표이사 : 장광수)에게 2002. 5. 1부터 2002.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보증금 120,000천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자로부터 재산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명도받아 학교시설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학교법인 쌍정교육학원 처리계획
 - 의왕시로부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와 임차인의 재산 명도처리계획 제출(1차)
 - 임사차인이 이진지(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소재)의 증축공사 지연에 따라 재산 명도연기 및 확약서 제출(2차)
 - 명도기한 : 2003. 12. 5까지
- 기타 위법한 사항은 동 건물준공 후 증자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과 기재상환 완료 후 보고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 관련자인 이사장, 법인담당자를 경고조치하고 관련자료를 첨부·보고하도록 하였고 처리결과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서는 경기도 및 의왕시 등에서 특별 지원을 한 특수목적고에 대해서는 경기도내 소재 중학교 출신 학생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시 경기도 출신 학생에 대한 가산점제도 도입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기도 소재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등학교 중 전국 단위로 신입생 모집을 하면서도 도내 출신 중학교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전형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 참고로 가산점 부여 방법은 아닙니다만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 중에서 정원의 일부를 경기도내 중학교 출신자로 우선 선발하는 학교는 3개교(부천시 소재 경기예술고, 이천시 소재 한국도예고, 안산시 소재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있으며, 이 학교들의 경우 정원의 50%를 경기도 중학교 출신자를 우선 전형하고 있습니다.
- 가산점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만 만약 경기도 출신 중학생에게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전형 방법을 허용할 경우,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내린 중등교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판결 사례를 감안해 볼 때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민원발생이나 소송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 의)

- 안양 및 연천지역 학교도서관 중 안양공고, 양명고, 연천 상리초등학교가 여름·겨울방학 중 개방하지 않은 이유와 학교도서관이 공휴일도 개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안양공고와 양명고, 연천의 상리초등학교가 여름방학 중 도서관을 개방하지 못

한 이유는 이들 학교가 올해 우리 교육청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지원교로 선정
한 학교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도서관
을 개방할 수 없었으며

- 겨울방학 중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양공고의 경우 계약사서 인건비 예산을
12월까지만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며, 양명고의 경우 도서의 대출, 반납 등 도
서관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서관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며, 연천의 상리초
등학교는 지역교육청 순회지원 사서가 12월까지만 지원되는 관계로 겨울방학에
개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2003년 리모델링 지원교는 내년에는 자체로 인건비를 확보하거나 도교육청에서
사서인건비를 지원하여 연중 개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공휴일도 개방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학교도서관 전담 관리인력이 대부분
교과담당교사 및 계약(일용)사서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공휴일 개방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 공휴일은 지역의 인근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시설 및 인력 측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학교는 공휴일 개방을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급식대상학생수의 약 5% 정도가 급식비를 체납하고 있으며 안양 비산초 등
일부 학교는 25.4%에서 11% 이상의 학생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생급식비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급식비
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이들 학교의 급식비 체납사유와 대책에 대하
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학생중식지원대상자 선정은 분기별로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비 미납학
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보다는 학부모 관심부족으로 급식비 납부가 지연되

고 있는 경우로 미납자에 대하여는 학교별로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의 급식비가 체납되는 사유는 대부분 학부모의 관심부족으로 사료됩니다. 비산초의 예를 들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스쿨뱅킹으로 급식비를 수납하는데 많은 학부모가 이용하는 국민은행에서 스쿨뱅킹을 기피하여 기업은행에서만 스쿨뱅킹으로 급식비를 수납하여 통장의 잔고부족 등으로 급식비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학교에서 급식비 납부방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급식비 수납에 있어 가정형편상 수납이 어려운 학생과 고의적인 체납학생을 선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담임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상담 등을 통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는 지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 의)

- 경기도예절교육원은 학생들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주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학생대상 연수실적이 10.5%에 그치고 있어 당초 예절교육원의 설립 취지를 크게 이탈하고 있다고 보시고 학생들의 연수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 변)

- 예절교육원의 학생연수 실적이 부진한 이유
 - o 예절교육원의 설치목적은 예절교육과 전통문화계승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지닌 건전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함이며 학생에게 직접 예절연수를 시키는 것이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o 그 동안 예절교육원 시설 규모가 협소하고 예절실습실의 부족, 교육과정을 운영할 교육연구사의 수 부족, 학생을 예절교육원까지 이동시키는 문제 등으로 학생연수 실적이 미약하였습니다.
 - o 그래서 예절교육을 희망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예절실 운영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 위주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수치상으로 학생들에 대한 예절교육 효과를 검증하기는 어렵습니다.

- 예절교육원의 향후 학생예절교육 확대 강화 방안
 - 예절교육원의 학생에 대한 예절교육의 미비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수비중을 높이며 학생예절교육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첫째, 예절교육원의 증축 완공으로 연수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져 2004년도 부터는 1회당 120~160명(연 5,000명)의 연수가 가능해져 점차적으로 학생연수 인원을 늘려 학생예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둘째, 예절교육원이 현장체험학습장화로 연수를 원하는 학교 단위로 수련활동을 운영하여 연중 학생예절교육이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학교 단위의 수련활동 지원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체험 학습위주의 교육과정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 넷째, 교원들의 심화과정 및 전문과정을 확대 적용하고 교원들의 학생예절지도 사 양성과정을 개발 운영하여 예절교육의 전문화를 기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예절교육 확산의 촉매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다양한 학생 예절교육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들에게 예절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전통예절교육을 익혀 올바른 가치관과 민족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